

# 육아가치관, 부부관계만족도가 36개월 미만의 첫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Child-care's Values and Satisfaction in a Relationship with a Spouse  
on the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ith a Child Younger than 36Months of Age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수연구원 최정신\*\*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  
Researcher : Choi, Jung-Shi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between mothers' and father's the sense of mothers and that of fathers about values related to childcare and satisfaction in a relationship with their spouse and review how the differences in the sense between mothers and fathers affects the parenting stress of wives.

Data for this research were collected in April 2007 from 300 couples living in Seoul having a first child younger than 36 months of age. The survey was analyzed using SPSS 12.0.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indicated that fathers had a more conventional senses of values relating to childcare and satisfaction in a relationship with the spouse than did mothers. Second, a mother's parenting stress rises according to the level of mother's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her spouse. Third, a mother's parenting stress rises by mother's satisfaction in relationship with the spouse lower than father's satisfaction in relationship with the spouse.

▲주요어(Key Words) :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육아가치관(child-care's value), 부부관계만족도(satisfaction in relationship with the spouse)

## I. 서론

자녀양육은 부모에게 심리적·사회적 안정감을 주고 자신의 삶을 반성할 기회를 갖게 하며,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과 부담이 동반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도 한다(Crinic &

Booth, 1991).

가족의 구조와 역할이 다양해지고, 핵가족화로 인하여 과거 대가족 제도에서 자연스럽게 전수되어 오던 자녀양육과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들이 단절됨에 따라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감소하였으며, 한 자녀 가정의 증가로 자녀양육과 관련된 경험이 더욱 부족해짐으로 인해 부모의 역할과 관련된 어려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이 여성에게 전적으로 부과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에 따른 과부담과 전통적 가치관의 불일치로 일상적

\* 본 논문은 2006년도 일본후지제록스小林節太郎  
(코야야시 세쯔타로우)기념기금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교신저자 : 최정신 (E-mail : spirit9515@hanmail.net)

문제들로부터 스트레스, 심리적 부적응과 육구충족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성연, 1997). 그러나 자녀양육에 있어서 대부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어머니가 경험하게 되는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정생활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박영아, 2005).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종래의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적 요인, 자녀관련 요인, 부부관계만족도와 육아가치관, 배우자의 육아참가,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어머니의 개인적 요인은 어머니의 연령, 학력, 수입, 취업상태 등을 들 수 있다.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은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지만(김리진·윤종희, 2000; 김정·이지현, 2005),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연령이나 학력이 30대 전반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득과 관련해서는 소득이 많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결과(박영아, 2005; 박정희·장영애, 2003; 전춘애·박성연, 1998)와 소득이 많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결과(김기현·조복희, 2000) 등 연구들 간에 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취업상태별로 살펴보면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冬木, 2000; 牧野, 1982; 牧野·中西, 1985), 고학력 전문 사무직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희경과 조복희(1999)의 연구에서도 취업모는 양육스트레스를 별로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문혁준(2004)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양육스트레스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관련 요인으로서 자녀의 연령, 성별, 자녀수, 자녀의 기질 등을 들 수 있다. 자녀의 연령과 관련해서는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김정·이지현, 2005; 송연숙·김영주, 2008; 오재연·유구중, 2007; 유우영·이숙, 1998; 이정순·무토다카시, 2001b), 특히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안지영·박성연, 2002; 이지원, 2003). 자녀의 성별은 남아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여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보다 양육스트레스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강희정·조복희, 1999; 김정·이지현, 2005; 장영애, 2003). 그리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김기현·강희정, 1997; 김리진·윤종희, 2000; 문혁준, 2004; 전춘애·박성연, 1998). 마지막으로 자녀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는 자녀의 기질이나 어머니의 기질보다는 자녀와 어머니의 기질 일치 여부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한세영·박성연, 1996).

셋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부부관계만족도와 육아가치관을 들 수 있다. 부부관계만족도가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김기현, 2000; 김기현·조복희, 2000; 이정순, 2003; 장영애, 2003; 전춘애·박성연, 1998), 전통적인 어머니 역할관과 성별역할분업의식이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강희정·조복희, 1999; 牧野, 1982). 또한 관여적 육아관을 가짐으로서 육아에 방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육아에 있어서 자신도 성장해 간다고 하는 신념이 낮음으로 인하여 양육스트레스가 발생한다는 것을 시사하였다(牧野 등, 2002). 한편, 김리진과 윤종희(2000)의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전통적 가치관은 양육스트레스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넷째, 배우자의 육아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배우자가 육아에 협력적이라고 느끼는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가 낮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김기현, 2000; 김기현·강희정, 1997; 김기현·조복희, 2000; 김리진·윤종희, 2000; 김정·이지현, 2005; 문혁준, 2004; 박정희·장영애, 2003; 유우영 등, 1998; 이정순, 2003; 이지원, 2003; 牧野·中西, 1985; 柏木, 1996; 中西, 1998). 강희경과 조복희(1999)에 의하면 배우자의 육아참가는 어머니의 취업상황과 관련이 있어서 취업모의 배우자가 육아에 대해 보다 협력적이라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육아협력 내용은 육체적이고 매일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육아보다는 자녀의 버릇이나 놀이 지도 등이 주가 되고 있어서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경감에는 연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중류층 가정의 배우자의 육아참가 내용은 일하지 않는 시간에 자녀의 놀이 상대가 되어주는 것이 주된 육아참가 내용으로 일상적인 육아참가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전춘애와 박성연(1996), 문혁준(2004)은 사회적 지지를 '가족, 친구, 이웃, 기타 개개인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유형의 도움과 원조'로 정의하고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있어서 취업유무와 관계없이 사회적 지지는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매개요인으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아버지, 동거 부모, 친족에 의한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고(冬木, 2000),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배우자의 지지에 대해 만족할수록 양육스트레스는 감소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Abidin, 1992). 한편,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강희경과 조복희(1999)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보고되었고 이것은 사회적 지지 정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들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자녀의 연령에 대한 대부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선행연구들은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나 학동기 자녀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있는 반면,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특히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자녀의 연령이 적을수록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를 더 느끼고 있고, 36개월 미만 자녀의 보육은 공적인 시설보다는 가족이나 친척 등의 혈연관계를 통한 양육자의 보살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주재선, 2007) 이 시기의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양육경험이 없는 첫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이미 자녀를 둔 어머니와는 지각수준이 다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자녀의 출생순위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가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양육 경험이 없는 첫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육스트레스는 배우자와 어머니의 개인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부부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통해 볼 때, 자녀양육이 어머니 혼자만의 역할이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족 모두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즉,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녀양육의 문제는 부모 어느 한 쪽만의 영향에 의해서 설명되어질 수 없으므로 반드시 아버지의 태도와 특성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상호 시스템에 의한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만 하는 것이다(Cmic & Low, 1995). 그러나 앞서 살펴본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부를 하나의 단위로 하는 부부대상 연구가 아니라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여 양육스트레스를 조사,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어머니 관련 변인만이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지적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어머니의 응답만을 근거로 하여 아버지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양육스트레스 연구가 실시되었으나(김기현·조복희, 2000; 오재연·유구중, 2007; 이정순·무토다카시, 2001a; 2001b), 이러한 연구들은 단지 어머니와 배우자 각각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을 뿐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와 배우자의 역동적인 상호 시스템에 의해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하는 시점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의식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부부를 쌍(pair)으로 조사하는 보다 객관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육아의 사회적 지지 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와 배우자의 역동적인 상호시스템에 의하여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하는 시점에서, 36개월 미만의 첫째 자녀를 둔 부부를 대상으로 육아가치관, 부부관계만족도에

대한 어머니와 배우자의 의식의 차이를 비교하고, 육아가치관, 부부관계만족도 및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한다. 이에 대한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경감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시스템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어머니와 배우자의 육아가치관, 부부관계만족도는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육아가치관, 부부관계만족도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어머니와 배우자의 육아가치관, 부부관계만족도의 차이 및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먼저,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1.67세이고,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 40.7%, 직업은 전업주부가 72.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배우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연령은 34.38세,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 63.3%, 상근의 회사원이 69.0%로 가장 많았다. 부부의 주택형태는 다세대주택 42.3%, 아파트 40.7%로 집합주택이 83%로 가장 많았고, 월평균 부부수입은 200만원에서 400만원 미만인 73.3%를 차지하였다. 부부는 현재 1.15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는 44쌍이었다. 예정 자녀수와 이상 자녀수는 각각 약 2명으로 어머니와 배우자의 자녀수에 대한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배우자의 평균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정 자녀수는 어머니 1.75명, 배우자 1.90명으로 어머니와 배우자 모두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체출산율 2.1명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자녀의 평균 개월 수를 살펴보면, 첫째 자녀가 21.5개월이고, 둘째 자녀의 평균 개월 수는 8.3개월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30대 중반 이하이고, 고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월평균 부부수입이 200~400만원 미만의 부부이며, 상근의 회사원과 전업주부 그리고 1명의 자녀로 구성된 집합주택 거주자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lt;표 1&gt;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어머니 (N=300)		내 용	배우자 (N=300)	
빈 도	%		빈도	%
<b>최종학력</b>				
87	29.0	고졸 이하	41	13.7
91	30.3	전문대졸	69	23.0
122	40.7	4년제대졸 이상	190	63.3
<b>직업</b>				
31	10.3	상근의 회사원	207	69.0
27	9.0	자유업, 자영업	81	27.0
24	8.0	기 타	12	4.0
218	72.7	비취업	0	0.0
<b>주택형태</b>				
46	15.3	단독주택	46	15.3
127	42.3	다세대주택	127	42.3
122	40.7	아파트	122	40.7
5	1.6	기 타	5	1.6
<b>월평균 부부수입</b>				
32	10.7	200만원 미만	32	10.7
108	36.0	200~300만원 미만	108	36.0
112	37.3	300~400만원 미만	112	37.3
48	16.0	400만원 이상	48	16.0
31.67세(범위 : 24~43)		<b>평균연령</b>	34.28세(범위 : 25~45)	
<b>자녀 수</b>				
1.15명(범위 : 1~2)		현재 자녀 수	1.15명(범위 : 1~2)	
1.75명(범위 : 1~3)		예정 자녀 수	1.90명(범위 : 1~4)	
2.19명(범위 : 1~4)		이상 자녀 수	2.21명(범위 : 1~5)	
<b>자녀의 평균 개월 수</b>				
21.5(범위 : 5~34)		첫째 자녀	21.5(범위 : 5~34)	
8.3(범위 : 0~32)		둘째 자녀	8.3(범위 : 0~32)	

&lt;표 2&gt; 자녀양육 실태

어머니(N=300)

	첫째 자녀			둘째 자녀		
	빈 도	%	이용시간*	빈 도	%	이용시간*
부부가 직접	139	46.3	-	33	75.0	-
보육시설	69	23.0	34.8	3	6.8	41.33
본인친족	57	19.0	27.7	4	9.1	24.3
배우자친족	20	6.7	46.7	3	6.8	81.3
이 웃	10	3.3	34.3	0	0.0	0.0
기 타	5	1.7	45.6	1	2.3	50.0
합 계	300	100.0	34.1	44	100.0	46.8

\*1주일 평균이용시간

## 2) 자녀양육 실태

<표 2>는 자녀 출생 순위별 자녀양육 실태를 살펴본 것이다. 첫째 자녀의 경우 부부가 직접 양육하는 비율이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보육시설(23.0%), 어머니친족(19.0%)

등을 통해 양육하고 있었다. 자녀를 맡기기 위해 도움을 받는 경우, 일주일 평균 이용 시간은 배우자친족이 약 47시간으로 가장 길고, 어머니친족에 의한 양육시간이 약 28시간으로 가장 짧게 나타났다.

둘째 자녀는 부부가 직접 양육하는 비율이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녀를 맡기기 위해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어머니 친족(9.1%), 보육시설(6.8%), 배우자친족(6.8%) 순으로 도움을 받고 있었으며, 배우자친족에게 자녀를 맡기는 경우 일주일 평균 약 81시간으로 가장 장시간 맡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녀가 36개월 미만인 부부의 경우 보육시설의 이용률이 낮고, 타인의 도움 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친족의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부가 배우자친족의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부보다 많지만, 배우자친족의 이용시간이 어머니친족의 이용시간 보다 길게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 1) 양육스트레스

한국의 양육스트레스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PSI), Crnic 과 Greenberg(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PDH), 牧野(1982)의 양육스트레스 척도, 冬木(1997)의 아버지 양육스트레스 척도,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한국형 양육스트레스 척도 등 4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한국형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다른 양육스트레스 척도에 비해 한국의 육아 환경을 고려해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이 척도는 대상이 취업모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를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을 경우 척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일본의 양육스트레스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牧野(1982)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취업유무에 따른 연구 대상의 제약이 없고, 양육스트레스를 부정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로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冬木(1997)는 아버지의 양육에 관한 심리상태를 근거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고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취업모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로서 牧野(1982)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고,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아버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안된 冬木(1997)의 아버지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한다.

###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牧野와 中西(1985)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상쾌하다', '생활 속에 여유를 느낀다' 등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 3문항과 '자녀가 성가시고 까다로워 짜증이 난다', '나 혼자서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중압

감을 느낀다' 등 육아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 7문항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이며, 긍정적인 의식 3문항에 관해서는 역산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이들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s  $\alpha=.68$ 로 나타났다.

### (2)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는 冬木(1997)의 '아버지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72$ ). 문항의 내용은 '육아 때문에 피로를 느낄 때가 있다', '자녀가 성가시고 까다로워 짜증이 난다', '자녀가 본인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등의 육아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2) 육아가치관

육아가치관은 양명숙(1993)의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역할관 척도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본 연구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육아가치관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Varimax 회전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 특성과 논리적 타당성을 고려한 3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각 요인의 문항 수는 요인 1이 3문항(아버지는 자녀의 올바른 성격을 형성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가정의 안정과 가사 및 육아를 공유해야만 한다, 배우자도 가사나 육아를 평등하게 분담해야만 한다), 요인 2가 4문항(어머니가 전적으로 육아의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어머니는 자신의 즐거움을 포기해서라도 될 수 있는 한 자녀 옆에 있어야만 한다, 자녀의 예의범절은 어머니만의 책임이다, 배우자의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부인이 할 일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다), 요인 3이 2문항(친어머니라면 본인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버지는 자녀의 올바른 성격을 형성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이었으며, 회전 후 고유치는 요인 1이 2.12, 요인 2가 2.11, 요인 3은 1.51이었다. 3개 요인 전체의 설명변량은 63.75%로 나타났다.

3개 요인의 문항 내용에 기초하여 요인 1은 '남성의 가사·육아참가의식(Cronbach's  $\alpha=.73$ )' 요인 2는 '성별역할분업의식(Cronbach's  $\alpha=.51$ )', 요인 3은 '모성규범(Cronbach's  $\alpha=.49$ )'이라고 명명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육아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 3) 부부관계만족도

부부관계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石原(1999)의 부부간 관계를 묻는 문항을 참고로 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나는

배우자와 함께 있으면 즐겁다', '우리 부부는 서로 배려하고 잘 챙겨주는 편이다' 등 부부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관계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들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s  $\alpha=.83$ 으로 나타났다.

#### 4) 육아지원

육아지원은 山根 등(1990)의 육아지원 기능분류 및 문항을 참고로 총 24문항을 변안하여 사용하였으며, 본 도구는 수단적 지원, 정서적 지원, 정보적 지원의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단적 지원 요인은 '자녀가 아플 때 도움', '쇼핑하러 외출할 때의 도움'의 2문항, 정서적 지원 요인은 '육아에 대한 하소연', '육아가 힘들다는 것을 이해주길 바랄 때의 도움'의 2문항, 그리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질병 등)의 상담', '육아법에 대한 조언'의 정보적 지원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원은 배우자, 본인친족, 배우자친족, 지역사회의 4영역으로 구분된다. 각 문항들은 '지원원 있다'를 1점, '지원원 없다'를 0점으로 처리하여 지원원별로 수단적 지원, 정서적 지원, 정보적 지원의 합계점수를 구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육아지원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는 36개월 미만의 첫째 자녀를 둔 부부로, 조사대상자는 통계청이 2005년 발표한 「인구총조사」에서 '0세부터 4세까지의 자녀가 있는 세대수'를 토대로 할당추출법에 의해 서울시 전 구(區)의 세대 비율에 따라 비례할당으로 무작위 추출하였다. 조사전문기관을 통하여 훈련된 면접원에 의해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으며, 총 300세대 600명(어머니: 300명, 배우자: 300명)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특히 첫째 자녀의 연령을 36개월 미만으로 통제된 것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부모역할 수행 상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사기간은 2007년 3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 이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자녀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둘째, 육아가치관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Varimax 회전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어머니와 배우자의 육아가치관, 부부관계만족도에 관한 의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쌍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육아지원 변인을 통제된 상황에서 배우자와 어머니의 육아가치관, 부부관계만족도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통계처리는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1. 어머니와 배우자의 육아가치관, 부부관계만족도 차이

#### 1) 어머니와 배우자의 육아가치관 차이

어머니와 배우자의 육아가치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쌍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육아가치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인분석을 통하여 남성의 가사·육아참가의 의식, 성별역할분업의식, 모성규범으로 분류하였다.

남성의 가사·육아참가의 의식, 성별역할분업의식, 모성규범 모두 부부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남성의 가사·육아참가의 의식은 어머니(평균=4.54, 표준편차=1.37)가 배우자(평균=5.61, 표준편차=1.69)보다 비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쌍체  $t=-9.60, p<.001$ ), 남성의 가사·육아참가의 의식의 가능한 문항점수범위는 3~12이므로 어머니와 배우자 모두 비교적 비전통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역할분업의식은 어머니(평균=9.24, 표준편차=2.57)가 배우자(평균=10.12, 표준편차=2.49)보다 비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쌍체  $t=-5.00, p<.001$ ). 성별역할분업의식의 가능한 문항점수범위는 4~16이므로 어머니와 배우자 모두 비

<표 3> 어머니와 배우자의 육아가치관 차이

	어머니(N=300)		배우자(N=300)		쌍체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남성의 가사·육아참가의 의식	4.54	1.37	5.61	1.69	-9.60***
성별역할분업의식	9.24	2.57	10.12	2.49	-5.00***
모성규범	4.97	0.61	5.24	0.71	-5.21***

\*\*\* $p<0.001$

교적 중립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성규범은 어머니(평균=4.97, 표준편차=0.61)가 배우자(평균=5.24, 표준편차=0.71)보다 비전통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쌍체  $t=5.21, p<.001$ ). 모성규범의 가능한 문항점수범위는 2~8이므로 어머니와 배우자 모두 비교적 중립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와 배우자의 부부관계만족도 차이

어머니와 배우자의 부부관계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쌍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와 배우자 간의 부부관계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쌍체  $t=-3.76, p<.001$ ). 어머니(평균=15.49, 표준편차=2.79)가 배우자(평균=15.98, 표준편차=2.47)보다 낮은 부부관계만족도를 갖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육아가치관, 부부관계만족도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육아가치관, 부부관계만족도가 36개월 미만의 첫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인의 기술 통계량은 <표 5>와 같다.

종속변인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평균은 25.84(표준편차=3.71)로, 이 항목의 가능한 문항점수범위는 10~40이므로 비교적 양육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은 어머니의 육아가치관과 부부관계만족도, 어머니와 배우자간의 육아가치관과 부부관계만족도의 차이 및 배우자의

<표 4> 어머니와 배우자의 부부관계만족도 차이

	어머니(N=300)		배우자(N=300)		쌍체 $t$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부부관계만족도	15.49	2.79	15.98	2.47	-3.76***

\*\*\* $p<.001$

<표 5> 분석에 사용된 변인의 기술통계량

(N=300쌍)

	평균	표준편차	범 위
<종속변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25.84	3.71	14~36
<독립변인> 육아가치관			
남성의 가사·육아참가의식	4.54	1.37	3~10
성별역할분업의식	9.24	2.57	4~16
모성규범	4.97	0.61	2~7
남성의 가사·육아참가의식의 차이	1.07	1.94	-8~5
성별역할분업의식의 차이	0.89	3.07	-10~7
모성규범의 차이	0.26	0.86	-3~3
부부관계만족도			
부부관계만족도	15.49	2.79	5~20
부부관계만족도의 차이	0.50	2.29	-11~6
양육스트레스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	20.91	3.51	8~32
<통제변인>			
취업유무	0.27	0.45	0~1
부부수입	315.00	104.78	50~750
육아지원			
배우자 지원	3.12	1.86	0~6
본인친족 지원	3.31	2.58	0~12
배우자친족 지원	1.85	2.15	0~11
지역사회 지원	3.22	2.94	0~16

양육스트레스로 설정하였다. 어머니와 배우자간의 육아가치관 차이 변인은 어머니의 육아가치관 변인 값에서 배우자의 육아가치관 변인 값을 뺀 값이고, 어머니와 배우자간의 부부관계만족도 차이 변인은 어머니의 부부관계만족도 변인 값에서 배우자의 부부관계만족도 변인 값을 뺀 값이다.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 평균은 20.91(표준편차=3.51)로, 이 항목의 가능한 문항점수범위는 8~32이므로 비교적 양육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변인은 취업유무와 부부수입, 육아지원을 설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요인, 자녀관련 요인, 생활만족도와 육아가치관, 남편의 육아참가,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육아가치관과 부부관계만족도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는 취업유무와 부부수입, 육아지원을 통계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본 조사의 연구 대상자를 36개월 미만의 첫째 자녀를 둔 부부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의 개인적 요인과 자녀관련 요인은 동질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표 1>과 <표 2>).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어 이 요인들은 변인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취업유무는 가변수 처리하였다(유직=1, 무직=0). 부부수입은 설문지 상의 부부수입 카테고리에서 중앙값을 산출하였고,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부부수입은 315만원 이었다. 육아지원은 배우자 지원, 본인친족 지원, 배우자친족 지원, 지역사회 지원의

4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배우자 지원의 평균은 3.12(표준편차=1.86)로 어머니는 배우자로부터 비교적 육아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친족과 배우자친족 지원의 평균은 각각 3.31(표준편차=2.58)과 1.85(표준편차=2.15)로 배우자의 친족보다는 본인의 친족에 의한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항목의 가능한 문항점수범위는 0~12이므로 어머니 본인친족과 배우자친족에 의한 지원은 매우 낮다. 마지막으로 이웃이나 친구와 같은 지역사회에 의한 육아지원의 평균은 3.22(표준편차=2.94)이지만, 이 항목의 가능한 문항점수범위가 0~16이므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36개월 미만의 첫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육아지원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각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r=.50$ 을 넘지 않고, 분산팽창요인(VIF)을 산출한 결과 계수가 모두 1.2이하이었기 때문에 각 독립변인 간에는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육아가치관과 부부관계만족도를 투입하였을 때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어머니의 육아가치관과 부부관계만족도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약 9.8% 정도 설명해 주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4.264, p<.001$ ).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부관계만족도이었고( $\beta=-.287, p<.001$ ), 육아가치관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6개월 미만의 첫째 자녀를 양육하고

<표 6> 어머니의 육아가치관과 부부관계만족도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N=300쌍)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상수	36.485	
육아가치관		
남성의 가사·육아참가의식	-.023	-.008
성별역할분업의식	-.081	-.056
모성규범	-.589	-.097
부부관계만족도		
부부관계만족도	-.382	-.287***
<통제변인>		
취업유무(유직=1, 무직=0)	-.903	-.109
부부수입	-.003	-.086
육아지원		
배우자 지원	.167	.084
본인친족 지원	.005	.003
배우자친족 지원	-.138	-.080
지역사회 지원	-.006	-.005
	$R^2$	.129
	Adj. $R^2$	.098
	F	4.264***

\*\*\* $p<.001$



<표 7> 어머니와 배우자의 육아가치관 차이, 부부관계만족도 차이 및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N=300쌍)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상 수	22.151	
육아가치관		
남성의 가사·육아참가의식의 차이	-.081	-.042
성별역할분업의식의 차이	-.124	-.102
모성규범의 차이	-.065	-.015
부부관계만족도		
부부관계만족도 차이	-.201	-.124*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	.233	.220***
<통제변인>		
취업유무(유직=1, 무직=0)	-.915	-.110
부부수입	-.004	-.110
육아지원		
배우자 지원	.120	.060
본인친족 지원	-.027	-.019
배우자친족 지원	-.160	-.092
지역사회 지원	-.003	-.002
R <sup>2</sup>	.127	
Adj. R <sup>2</sup>	.093	
F	3.801***	

\*p<.05 \*\*\*p<.001

있는 어머니의 경우, 부부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다.

어머니와 배우자의 육아가치관 차이와 부부관계만족도 차이 및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 변인을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전체 독립변인의 설명력은 약 9.3%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3.801, p<.001). 표준화된 회귀계수(β)로 영향력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 β값이 .220(p<.001)으로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어머니와 배우자의 부부관계만족도 차이(β=-.124, p<.05)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고, 어머니의 부부관계만족도가 배우자의 부부관계만족도보다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36개월 미만의 첫째 자녀를 둔 부부를 대상으로 육아가치관, 부부관계만족도에 대한 어머니와 배우자 간의 의식 차이를 비교하고, 육아가치관과 부부관계만족도 및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와 배우자의 육아가치관을 비교한 결과 남성의 가사·육아참가의식, 성별역할분업의식, 모성규범의 3요인에 있어서 모두 어머니가 배우자보다 비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관계만족도는 어머니가 배우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육아가치관에 있어서 어머니집단이 배우자집단에 비해 비전통적인 경향성을 갖는다는 결과와 일치하지만, 부부관계만족도는 어머니집단과 배우자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는 상치하는 결과이다(오재연·유구중, 2007).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의 차이는 부부를 쌍(pair)으로 비교한 연구와 어머니 집단과 배우자 집단의 집단 간 비교의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의 차이일 수 있기 때문에, 부부를 쌍(pair)으로 비교하는 추후 연구 축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부부관계만족도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부부관계만족도가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변인보다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관계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김기현, 2000; 김기현·조복희, 2000; 이정순, 2003; 장영애, 2003; 전춘애·박성연, 1998). 배우자로부터의 사랑과 수용은 다른 대인

관계에서 제공될 수 없는 질적으로 독특한 자원이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어머니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고독감을 갖게 된다(牧野, 1982). 즉, 조화롭고 협력적인 부부관계는 아동의 안정적인 애착의 발달에 도움이 되며(Howes & Markmann, 1989),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켜 가족구성원의 안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이정순, 2003). 또한, 어머니는 배우자와의 대화시간 보다는 부부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다(中西, 1998). 따라서 부부관계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배우자와의 관계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직접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의미에서의 유대를 기초로 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관계 향상을 위한 부부 대화 프로그램 개발이나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미혼자를 대상으로 한 결혼 준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육아가치관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모의 전통적 가치관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김리진과 윤종희(2000)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만, 전통적인 어머니 역할관과 성별역할분업의식이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한 강희경과 조복희(1999)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저출산 사회에 관한 국제 의식 비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별역할분업의식에 관해서는 한국 48.6%, 일본 57.1%로 한국이 일본보다 비전통적인 성별역할분업의식을 갖고 있으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永瀬, 2005). 즉, 여전히 배우자는 어머니보다 육아와 관련된 전통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지만, 남녀평등 사상의 보급, 여성의 교육연한 증가 및 사회진출에 따라 어머니의 육아가치관은 성평등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남녀간의 육아가치관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 것임을 시사한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부부간의 상호 시스템에 의한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파악하기 위해 어머니와 배우자의 육아가치관 차이와 부부관계만족도 차이 및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 변인을 투입한 결과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었고,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단순히 어머니만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기 때문에 가정 내 자녀양육 기능을 지원함에 있어서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지원 시스템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는 배우자의 심리적 요인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자녀양육은 더 이상 여성 고유의 과제가 아니며 어머니와 배우자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부부관계만족도가 배우자의 부부관계만족도보다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어머니의 부부관계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결과와 일맥상통하며, 어머니는 배우자가 인식하는 부부관계만족도 보다 자신이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때 양육스트레스가 증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어머니와 배우자의 육아가치관의 차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육아가치관의 차이는 부부간에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부간의 상호 시스템에 의한 역동적인 관계에서 파악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부부관계만족도와 어머니와 배우자의 부부관계만족도 차이 및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육아가치관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가치관적인 요인보다는 부부관계만족도나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어머니 또는 배우자의 개별 단위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를 하나의 단위로 하는 전체 가족 중심의 사회적 양육 지원 시스템 구축이 마련되어야 하며, 부부관계만족도를 높이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도 경감시키거나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도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대상이 특정 도시에 거주하는 부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를 통해 지방 소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부부와의 비교연구도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의 독립변인으로 사용된 육아가치관 척도는 양명숙(1993)의 부모역할관 척도를 참고하여 구성하였으나, 신뢰도를 검증하는 Cronbach's  $\alpha$ 값이 낮아, 육아가치관을 측정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육아가치관과 관련하여 세밀한 측정을 할 수 있는 척도의 연구와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독립변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를 36개월 미만의 첫째 자녀를 둔 부부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개인적 요인과 자녀 관련 요인이 동질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의 기질이나 자녀양육 실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설정된 독립변인 이외에도 이러한 변인들을 포함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연구에 있어서 배우자와의 상호 시스템에 의한 역동적인

관계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이는 향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경감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시스템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기초가 되리라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강희경·조복희(1999).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어머니의 역할관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0(2), 41-55.

김기현(2000).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변인 탐색. **한국생활과학회지**, 9(1), 71-84.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김기현·조복희(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변인 탐색. **아동학회지**, 21(4), 35-50.

김리진·윤중희(2000).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만6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직, 사무직 및 생산직 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12), 47-58.

김정·이지현(2005).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6(5), 245-261.

문혁준(2004).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42(11), 109-122.

박성욱(1997). 취업상태 및 선호에 따른 어머니의 격리불안, 우울과 양육스트레스. **미래유아교육학회지**, 4, 73-90.

박영아(2005).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영유아교육연구**, 8, 97-113.

박정희·장영애(2003).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관련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3), 31-44.

송연숙·김영주(2008).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비교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3), 181-203.

안지영·박성연(2002).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1), 53-68.

양명숙(1993). 부모전환기에서의 역할 연구(I): 부모 역할관에 대하여-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한국의 부모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4), 53-66.

오재연·유구종(2007).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변인 탐색: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2(5), 73-94.

유우영·이숙(1998). 유아의 사회적 적응과 관련 변인간의 인과

관계-양육스트레스원, 사회적지지, 육아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65-78.

유우영·최진아·이숙(199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51-61.

이정순(2003).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3(3), 5-19.

이정순·무토다카시(2001a). 한국과 일본의 영아 부모에 대한 육아스트레스와 인격변화간의 관계 비교. **열린유아교육연구**, 6(2), 193-208.

이정순·무토다카시(2001b).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의식과 육아스트레스-여성의 취업과 개인지향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5(2), 89-110.

이지원(2003).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 요인. **한국모자보건학회지**, 7(2), 207-216.

장영애(2003). 취학전 아동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 연구: 농촌주부를 대상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지**, 14(1), 1-12.

전춘애·박성연(1996). 자녀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5), 115-129.

전춘애·박성연(1998).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사회학적 변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95-105.

주재선(2007). **2007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75-178.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연도

한세영·박성연(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조화/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아동학회지**, 17(1), 245-258.

冬木春子(후유키 하루코)(1997). 父役割が父親の役割満足感と役割葛藤に与える影響. **家族関係学**, 16, 25-37.

\_\_\_\_\_ (2000). 乳幼児をもつ母親の育児ストレスとその関連要因-母親の属性及びソーシャルサポートとその関連において-. **現代の社会病理**, 15, 39-56.

石原邦雄(이시하라 쿠니오)編(1999). 妻たちの生活ストレスとサポート関係-家族・職業・ネットワーク. 東京都立大学都市研究所.

牧野カツコ(마키노 카즈코)(1982). 乳幼児をもつ母親の生活と<育児不安>. **家庭教育研究紀要**, 3, 34-56.

牧野カツコ(마키노 카즈코)·강수정·이영(2002). 幼児をもつ母親の育児不安とその影響要因-日本と韓国の比較から-. **お茶の水女子大学人文科学紀要**, 55, 331-347.

牧野カツコ(마키노 카즈코)·中西雪夫(나카니시 유키오)(1985). 乳幼児をもつ母親の育児不安-父親の生活および意識との関連. **家庭教育研究紀要**, 6, 11-24.

永瀬伸子(나가세 노부코)(2005). 少子化社会に関する国際意識調査報告書. 「育児」内閣府政策統括官(行政社

- 会政策担当) , 125-152.
- 中西雪夫(나카니시 유키오)(1998). 母親の育児不安. 家族関係学, 17, 1-10.
- 柏木恵子(시로와키 케이코)(1996). 子ども・育児による親の発達. 柏木恵子(시로와키 케이코)・中野由美子(나카노 유미코)・牧野カツコ(마키노 카즈코)(編). 子どもの発達と父親の役割(59-72). ミネルヴァ書房.
- 山根真理(야마네 마리)・松田智子(마쓰다 토모코)・斧出節子(오노데 세쓰코)・関井友子(세키이 토모코)(1990). 保育園児をもつ母親の育児問題-育児不安を中心にして-. 総合社会福祉研究, 2, 110-121.
- Abidin, R. R.(1990). *Parenting Stress Index*.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bidin, R. R.(1992).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4), 298-301.
- Critic, K. A. & Booth, C. L.(1991).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daily hassles of parenting across early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 Family*, 53(4), 1042-1050.
- Critic, K. A & Greenberg, M. T.(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Critic, K., & Low, C.(1995).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Practical Issues in Parenting(Vol. 5)*(286-297).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owes, P., & Markmann, H. J.(1989). Marital quality and child functioning;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Child Development*, 60(5), 1044-1051.

- 접수일 : 2009년 05월 21일
- 심사일 : 2009년 07월 28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10월 07일